



Global Collaborative 2016 Summer Program
신청기간 : 2016. 03. 14 ~ 2016. 04. 30
프로그램 수강기간 : 2016. 07. 04 ~ 2016. 07. 28
문의 : 미래문명원 02-961-0995 summer@khu.ac.kr



4월의 어느 봄날 지난 8일 오후, 중앙동아리 '경희랑 달리기' 회원들이 본관 앞 잔디밭에 모여 '본관놀이'를 즐기고 있다. 봄날의 정취를 만끽하며 이야기꽃을 피우는 학생들로 4월의 본관 앞은 시끌벅적하다(사진=백승철 기자)

Newsmaker

'마스터 셰프 코리아 시즌4'에 출연한
구태근(조리·서비스경영학 2015) 군



나의 꿈, 어머니가 해주신 요리처럼

최병현 기자 chbh1027@khu.ac.kr

#. 아침이면 모락모락 김이 나오고, 코 끝을 간질이는 알쏭달쏭한 냄새. 분주한 부엌 쪽 달그락 소리에 잠이 깨기 마련이다. 바로 어머니가 아침밥을 준비하시는 모습이다. 어머니가 차려주신 아침밥을 생각하면 각자 저마다의 추억을 떠올리게 된다. 여기에 조금 특별한 추억을 가진 '청년 셰프'가 있다. O'live TV채널의 인기 프로그램 '마스터 셰프 코리아 시즌4'에 출연한 구태근(조리·서비스경영학 2015) 군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그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그는 요리 쪽으로 진로를 정하게 된 이유로 망설임 없이 '어머니'를 꼽았다.

"어릴 적 어머니가 각종 레시피를 찾아 맛있는 음식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무렵부터 어머니가 아주 편찮으셨죠. 병상에 누워 계신 어머니를 대신해 음식을 하곤 했는데, 그 무렵부터 요리에 자연스레 흥미를 느끼게 됐어요. 항상 어머니께 부끄럽지 않은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고 싶었는데, 이런 마음이 요리하는 어머니의 뒷 모습에 대한 그리움과 맞물려 요리사에 대한 꿈으로 커진 것 같아요."

하지만 정작 그가 요리하는 모습을 병상의 어머니는 한 번도 지켜볼 수 없었다. 이것이 아쉬웠던 그는 'TV로나마 아들이 요리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그렇게 그는 '마스터 셰프 코리아 시즌4' 출연을 결심하게 됐다.

이렇듯 대학본부 측은 '재정'만을 위해 프라임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설령 사업에 선정되지 않는다고 해도 사업안을 일괄 폐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4면으로 이어짐

그의 특별한 사연도 방송에서 주목받았지만, 쾌활한 성격 역시 큰 화제가 됐다. 방송을 통해 '미소천사'라는 별명을 얻었을 정도로 생글생글한 웃음으로 주변 사람을 배려하는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이에 대해 구군은 "눈이 좀 작아 이러한 별명을 얻은 것 같다"면서 "평소에도 긍정적이고 쾌활한 성격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방송에 출연한 이후에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바쁜 학교생활을 하고 있단다. 평일에는 학과 공부와 학생회 활동을 병행하고, 주말에는 가로수길에 있는 디저트 가게에서 일한다. 한 달에 한 번 청소년 센터에서 재능기부로 제과제빵도 가르친다. 이러한 바쁜 삶에 대해

"좋아서 하는 요리 공부이기에 힘들다고 느껴본 적은 없다"며 멋쩍게 웃었다.

"요리를 더 공부하고 싶어서 해외 유학이나 교환학생을 다녀올지 고민하고 있어요. 외국에 나가 직접 현장에서 요리를 배우다 보면 깨닫고 와닿는 것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다양한 경험을 해야 음식에도 풍부한 맛이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는 자신의 삶을 '도전'이라는 단어에 비유했다. "누구나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떠한 기회가 왔을 때 조그만 두려움 때문에 떨쳐버리기 보단 한 번쯤은 부딪혀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릴 적 어머니가 요리를 해주시던 마음으로,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드는 요리사가 되고 싶다"는 그의 '도전'이 성공으로 이어지기를 응원해본다.

"프라임사업, 우리의 미래 전략과 일치"

외국어대학 서울캠 이전 '조건과 합의' 충족시 고려할 수 있어

한균태 부총장·신상협 원장 인터뷰

황경선 기자 sunny96@khu.ac.kr
양윤혁 기자 yangyun0820@khu.ac.kr

지난 31일, 프라임사업 계획서 지원이 마감됐다. 7개 지원가능 계열 중 수도권 대형 사업에는 우리학교를 포함한 총 9개교가 지원했다. 프라임사업은 산업 수요에 맞는 대학 정원조정을 목표로 진행되는 대학 재정지원 사업으로, 학과 변동 및 정원조정을 예고해 구성원들로 하여금 많은 논쟁을 불러왔다. 프라임사업은 구성원 사이에 친반 의견이 분분한 민감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대학본부 측이 사업에 적극 참여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까. 우리 신문은 한균태 서울부총장과 미래정책원 신상협(국제대학원) 원장을 만나 프라임사업에 대한 대학본부가 생각하는 방향에 대해 들어보았다.

두 사람은 우리학교의 프라임사업 지원 이유에 대해 '학교 발전 방향과 프라임사업의 취지가 일치하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 부총장은 "우리학교가 미래대학의 길을 열기 위해 제시한 전략에는 5개의 클러스터(단위체)가 있다"며 "프라임사업의 방향은 이 클러스터 중 '미래과학 클러스터', '바이오헬스 클러스터'와 상당 부분 일치하기 때문에 진행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에 선정되면 정부의 재정

지원이 이뤄지므로 발전방향에 맞는 사업들을 보다 용이하게 추진하고, 교비를 절약해 다른 부분에 대한 투자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고 답했다.

즉, 프라임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대학이 취해야 할 방향이 우리학교가 계획했던 클러스터 5개 영역 중 이공계 2개 영역과 부합하므로, 이 2개 영역을 우선 시행키로 한 것이다. 때문에 교육부의 이공계 정원 확대 사업인 프라임사업은 우리학교의 미래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지름길'이라는 것이 본부 측의 입장이다.

실제로 우리학교가 교육부에 제출한 프라임사업 계획서에는 '바이오헬스 클러스터'와 관련 있는

'바이오융합대학'과 '미래과학 클러스터'와 관련 있는 '미래융합 공학대학'의 신설이 포함돼 있다. 한 부총장은 계획서에 대해 "두 개의 클러스터를 먼저 추진하는 게 유리하겠다는 판단 하에 진행하는 것"이라며 "나머지 인류문명, 문화예술, 사회체육 클러스터도 계획에 따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렇듯 대학본부 측은 '재정'만을 위해 프라임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설령 사업에 선정되지 않는다고 해도 사업안을 일괄 폐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4면으로 이어짐

시장 사회란 무엇인가?

후마 - 대학주보 공동기획 인류문명을 만든 핵심개념 ⑫

이경석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칼 마르크스나 제오르크 짐멜에게서 볼 수 있듯, 모든 것이 화폐거래의 대상이 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자본주의 초기부터 있어 왔다. 그러한 가능성이 오늘날에는 현실화되고 있다. 마이클 샌델은『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저서에서 그러한 상황 변화를 잘 보여 준다. 오늘날에는 생명, 정치적 기본권은 물론 사랑과 우정까지도 돈으로

사고 파는, 웬지 불편한 느낌이 드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것들은 종래에는 화폐 거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던 것들이다.



시장사회란 시장경제가 단지 물질적 재화의 거래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삶의 영역으로 확대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러한 현상을 마이클 샌델은 "시장사회"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시장사회란 시장경제가 단지 물질적 재화의 거래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삶의 영역으로 확대되는 현상을 말한다. 시장 경제는 생산을 조직하는 도구인 반면, 시장사회는 시장가치가 인간 활동의 모든 영역에 스며든 일종의 생활 방식이다.

현대사회의 시장사회화는 세상의 변화와 경제학자들의 주제 이해 방식의 변화에 기인한다. 최근에는 전통적으로 비시장적 규범이 지배했던 삶의 영역들에까지 시장과 시장 지향적 사고가 침투하고 있다.

▶7면으로 이어짐

알림

대학주보 SNS로 더 다양한 대학주보를 만나보세요!

f 페이스북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khunews>

g+ 인스타그램 <https://instagram.com/khunews/>

v 유튜브 '대학주보'

https://www.youtube.com/channel/UC8t9_LCfmJ7dxw4THjUR0YQ

전문가 칼럼

발전과 만족의 병행

남성우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7면



중간고사 일정으로 인해

다음 신문은 5월 9일 발행됩니다.

시선

사설

바닥으로부터의 의제 수렴 혁신위 성과 좌우할 것

지난 3월 출범 예정이었던 ‘21세기 대학혁신위원회(혁신위)’가 당초 예정보다 조금 늦춰진 오늘(11일) 정식 출범한다. 우리신문이 지난 제1602호 사설에서 언급한 바 있듯, ‘혁신’을 키워드로 삼고 있는 이 조직은 향후 1년 간 교수, 학생, 직원 사회의 다양한 영역대를 포괄하며 대학 내의 전반적인 문화, 인식, 구조 등을 바꿔나가게 될 전망이다.

어떤 조직이든 그 존재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목표와 아젠다, 그리고 이슈가 명확히 설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1년이라는 짧은 기간이 주어진 혁신위의 상황을 고려해볼 때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목표가 아니라 구체적인 아젠다일 것이다. 정상적인 조직이라면 우선순위에 따라 논의에 부칠 주요 주제의 목록, 즉 아젠다를 갖기 마련이다. 아젠다로 상정되지 않은 것은 그 어떤 것도 정상적으로 논의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임을 감안하면, 이 아젠다 세팅은 혁신위의 향후 성과를 좌우한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작업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혁신위의 아젠다 세팅은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가.

흔히 ‘조직의 혁신’을 논할 때 빠지기 쉬운 함정은 강력한 리더십을 기반으로 이뤄지는 상의하달(上意下達)식의 의사 흐름이다. 이것은 조직의 경영진 입장에서 매우 수월한 방식일뿐더러,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몇몇 천재적 리더십의 강력한 혁신 사례들 덕분에 일종의 후광효과까지 지니고 있는 탓이다.

그러나 이 ‘조직의 혁신’이라는 것이, 단순히 상품의 성과가 아니라, 거의 모든 제 구성원의 삶에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될 대학 내의 문제를 될 경우 이 ‘후광효과’는 위험한 신기루가 될 수 있다. 지난 사설에서도 얘기했듯 구성원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혁신이란 결국 그 구성원의 생활에 밀접하게 다가가는 것이어야 한다. 이것이 배제될 경우 그 혁신은 삶이 아닌 구호에 머무르게 된다. 각 단위체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체계가 없는 상태에서 도출된 아젠다라면 그것이 어떻게 논의되든 현실과 유리된 결과를 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학 내의 혁신이, 제 구성원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세밀하게 이뤄지는 하의상담(下意上達)의 성격으로 이뤄져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학교 내에 존재해온 많은 위원회와 협의체들을 상기해볼 때 이번 혁신위 역시 대표성을 띠는 몇몇 위원들이 개혁안을 제시하고 이 사안들이 중심 인건화 되어 혁신 작업의 요체를 이를 확률이 높다고 하겠다.

혁신위는 각 구성원 위원회에서의 의견수렴 뿐 아니라 전체 구성원이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공청회나 상시 제보를 받을 수 있는 소통창구의 확립 등 다양한 언로를 보장하여 구성원들이 ‘우리가 만들어 가는 혁신’이라는 혁신을 가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가장 낮은 단계의’ 수렴을 통해 각 구성원의 의견들이 혁신위의 핵심 의제로 다뤄지게 된다면, 혁신위가 세워놓은 ‘2019년까지 세계 정상권 대학으로 진입’한다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목표는 우리에게 조금 더 가까워지게 될 것이다.



이정은

이주의 주제 -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대학본부 표절·학장·방관, 그리고 쌓이는 불신

최재원 (정기자)
jankin1997@khu.ac.kr

‘호텔관광대학(호관대) 변정우 학장의 논문 표절’이 대자보를 통해 공개된 지 일주일이 지났다. 2015년 2학기 우리대학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심의 결과, 변 학장이 2010년 2월 외부 학회지에 투고한 논문은 표절로 판명됐다. 이후 서면공고를 통해 해당 논문을 삭제하는 등 후속조치를 마쳤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 사건이 이제 와서 다시 수면 위로 오른 것일까. 지난달 29일 서울캠퍼스(서울캠) 교수의회는 대자보를 게시하고 ‘지난해 변 학장의 논문표절 의혹이 사실로 판명된 만큼 그에 대한 적절한 인사 조치를 대학본부 측에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학본부는 ‘조기퇴진에 따른 변 학장 개인의 불명예가 우려된다’고 답변했고 ‘연말 인사 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구두약속을 남겼다고 전했다. 하지만 해가 바뀌고 학기가 시작됐지만 변 학장에 대해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자, 대자보를 붙여 이 문제를 공론화한 것이다.

서울캠 교수의회 측의 대자보 게시에, 호관대 교수들은 명예훼손 등을 지적하는 대자보를 붙였다. 해당 글에 따르면 ‘표절 건에 대해서는 이미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의 합리적인 심의 절차를 거쳤으며, 서면 경고를 받아 완료된 사안’이라고 한다. 또한 ‘교수 개개인이 스스로 지난 일들을 겸허히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며, 이

제는 우리 모두가 대학발전을 도모하는 일에 함께 매진하자’는 입장도 나와 있다. 즉, ‘다 지난간 일에 굽어 부스럼을 내느냐’는 내용의 자보가 붙은셈이다.

기자는 일련의 ‘대자보 전쟁’을 보면서 불편한 마음을 지울 수 없다. ‘전문기관의 판단’이 갈등 상황에서 도외시되고 있다는 점 때문이었다. 논문표절 건과 이후 처리를 담당했던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전문기관으로서 객관성을 가지고 결론을 내린 것이었다. 그 ‘원위’는 존중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대학본부의 이 같은 무반응은 마치 사태가 잠잠해지길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애초에 대학본부는 왜 ‘기다려 달라’고 약속했는가. 일부 인사의 ‘대기 요청’ 한마디에 총장 승인까지 완료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의 결정이 가벼워졌다. 당시 변 학장에 대한 심의와 징계결과가 합당했다면 ‘기다려 달라’는 말보다 전문기관의 객관적인 판단을 존중한 후속 조치가 나왔어야 할 것이다.

일부 대자보에서는 교수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을 운운하며 짚은 우려를 표하고 있었지만, 오히려 유감스러워해야 할 부분은 교수와 대학본부, 나아가 학교 전체에 대한 학생들의 신뢰 하락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나 교원인사위원회라는 번듯한 기관을 세워놓았음에도, 그 안에서 끝을 내지 않고 사태를 미뤄온 대학본부의 책임을 결코 간과할 수 없다. 내부적으로 공정하게 매듭지을 수 있었다면 그렇게 했어야 했다. 굽어 부스럼 낸다고 타박할 게 아니라, 애초에 가려운 곳을 만들지 않아야 한다.

국제캠 운행 버스기사 학생 승객에게 폭언 및 승차거부

미디어 여론동향 2016. 03. 28. ~ 04. 08

여론동향팀 khunews@khu.ac.kr

서울캠 중앙도서관(중도) 좌석배정 모바일 어플의 좌석예약기능이 지난 1일부로 사용 중단됐다.(중도 좌석예약 시스템 개선 계획, 예산 확보문제로 실현여부 ‘불투명’/대학주보 온라인, 2016.4.6) 중도는 지난달 30일 공식 SNS 계정을 통해 이를 공고했으며 추후 시설과 어플 개선 뒤 예약기능을 재개할 예정이다. 기존 어플의 기능은 기존 좌석이용자가 있음에도 예약 가능 좌석으로 표기되거나 관내 좌석발급기에 예약된 좌석이 표시되지 않는 등의 불만이 제기돼 왔다. 중도 사서과 장소영 과장은 “2006년에 설치된 게이트 등 제반 시설과 연계되는 문제인 만큼 시설 미비로 완벽한 지원

이 불가했다”라며 “예산 편성을 충분히 받으면 게이트를 비롯해 도서관 사석화와 같은 고질적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교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모바일 학생증과 무관하게 각 좌석에 단말기를 설치해 좌석에서 퇴실과 연장처리를 할 수 있는 NFC나 블루투스 비콘 등의 방식도 검토 중이다.

우리학교 페이스북 대나무숲에서는 국제캠 교내 버스 기사들의 태도에 대한 성토가 줄을 이었다. 국제캠 교내 운행 버스 기사들의 폭언과 학생과 승객에게 서로 다른 태도를 비판하며 최근들어 더 심해진 것 같다 는 글(#경희숲_13291, 2016.4.5)과 하루에 한 번은 욕설과 폭언이 들렸다는 경험담, 학생을 무임승차 범죄자 취급하며 승차를 거부하는 이야기가 아전 놀랍지도 않다는 글(#경희숲_13293, 2016.4.5)이 이어졌다. 매년 종학이 항의해도 문제는 반복되며 한 줄 서기 캠페인도, 임시정류장도 모두 실패했으니 대책이 무엇이겠느냐는 글도 있었다.(#경희숲_13292, 2016.4.5) 댓글 역시 ‘욕하는 기사님 신고했다’, ‘몇 년 동안 이런 일을 못 봤는데 최근 유독 이런 경우를 많이 보는 것 같다’, ‘난폭운전에 무정차 통과까지 기사님들 패기롭다’는

의견이 많았다.

캠퍼스를 수놓은 벚꽃을 즐기는 학생들의 글도 많았다. ‘서울캠 문과대 뒤풀 벚꽃은 그늘진 환경 덕분에 정문과 본관 인근의 다른 벚꽃보다 1주일 늦게 핀다’며 ‘지는 벚꽃이 아쉽다면 문과대 뒤 벤치에서 늦은 벚꽃을 감상할 수 있다’는 글(#경희숲_13294, 2016.4.5)은 약 300개의 ‘좋아요’를 받았다. 이 글에는 ‘문과대 뒤풀’, ‘벚꽃을 더 볼 수 있어 다행이다’라는 의견이 달렸다. 한편, ‘공대 앞은 벚꽃이 안 핀다’는 슬픈 댓글도 볼 수 있었다. ‘학교에 식물생식기 하나 보겠다고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다’는 글(#경희숲_13339, 2016.4.7)은 597개의 ‘좋아요’를 받으며 큰 호응을 이끌어 냈다. 댓글로 ‘나의 낭만이 무너졌다’, ‘이 분 배우신 분’, ‘겹벚꽃은 수술이 앞으로 변한 경우이니, 불구자입니다’와 같은 의견이 있었다. 또 다른 글쓴이는 (#경희숲_13278, 2016.4.4) ‘수업 끝나고 혼자 평화의 전당부터 미대까지 산책을 했다’며 ‘경희대 오길 잘했다’는 의견을 남겼다. 316개의 ‘좋아요’를 받은 이 글에 학생들은 ‘휴학중동마저 없어지는 풍경’, ‘자전거타고 한 바퀴 돌면 좋다’ 등의 의견을 남겼다.

우리의 미래를 장년층과 노년층에게 맡기지 말자

세시봉

이성민 (뉴스타운)



지난달 31일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후보자들은 각자 자신들의 퍼포먼스를 시작했다. 이번에도 예상했던 바와 같이 후보자들의 유세는 막장 드라마다.

후보들은 전국 각지에서 일명 ‘읍소작전’이라 불리는 선거운동으로 유권자들의 관심을 사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갑 선거구에 출마한 새누리당 김문수 후보는 지난 6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네거리에서 명석을 깔고 공천 파동에 대한 사죄로 선거운동 기간 동안 매일 100번의 절을 올리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 뿐만이 아니다. “용서해 달라”, “정신 차릴게요” 등 일회성 발언을 남발하며 유권자들에 감정으로 호소하는 후보가 한둘이 아니다. 후보자들의 어처구니없는 ‘죠’는 공식적인 선거운동기간인 4월 12일까지 계속될 판이다. 당연하지만 선거가 끝난 후의 태도는 여느 때와 다를 것이 없을 것이다.

선거철에만 작아지는 정치인 보지않기 위해 반드시 투표하자

지난 18대 총선을 보면 20대 초반과 후반의 투표율은 각각 32.9%와 24.2%로 전 연령 중 가장 낮았다. 19대 총선 역시 20대 전,후반의 투표율은 각각 45.4%, 37.9%로 20대 후반의 투표율이 가장 낮았다. 18대 총선보다 19대 총선의 젊은 층 투표율은 올랐으나 그래도 다른 연령에 비해 많이 저조한 것은 동일했다.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4월 4일까지 진행된 제20대 총선 재외투표에 6만 3,797명이 참여해 41.4%의 투표율을 기록했다고 한다. 이는 지난 총선 재외국민 투표율보다 4.3%가 줄어든 수치다.

OECD국가들 가운데, 우리나라 국민의 투표율은 최하위 수준이다. 비슷한 수준의 국가들 중 정치적 관심도가 가장 낮은 것이다. 특히 그중에서도 젊은 층의 투표율이 낮은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인터넷에선 지난 총선에서 머리를 조아리던 후보가 의원이 되자 유권자를 무시하는 듯한 사진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선거철에만 국민 앞에 낮아지는 사람은 더 이상 필요 없다. 선거 유세 기간에만 작아지는 정치인을 보지 않기 위해선 그들에게 긴장감을 불어넣어줘야 한다. 특히 젊은 층들이 투표에 참여하면 그들은 젊은 층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JTBC 손석희 앵커는 ‘투표율을 높인다면 선거에서 엄청난 파괴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우리들의 미래를 장년층과 노년층에게만 맡기지 말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 말처럼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 미래에의 책임이란 투표에의 책임과 다른 말이 아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4년간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도록 모두 이번 주 수요일에 있을 총선에 참여해 소중한 우리들의 권리를 행사하자.

알림

대학주보에

당신의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대학주보는 늘 열려있습니다. 여러분이 겪은 모든 일을 이야기해주세요. 무엇이 라도 좋습니다. 사소한 추억부터 어려운 상황까지 함께 나눠주세요. 늘 당신의 옆에 있겠습니다.



http://www.mediakhu.ac.kr/khunews/inform_us_list.asp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주간)

발행·편집인 조인원 | 주간 김혜경 | 편집장 이시은 | 제작/인쇄 중앙일보미디어(주) 구독료 1년 1만원 | 구독 02-961-0093-4 | 주소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동로 241-7317(미래기획)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 | 이메일 khunews@khu.ac.kr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대덕동 1732(서천동) | Tel 031-201-3230-2, FAX 031-204-8121

공학계열 인원 늘어나고 인문사회·예체능 줄어든다

신설단과 대학 정원 및 이동계획

김규래 기자 rlarbfo41@knu.ac.kr

지난달 31일 교육부에 제출한 프라임사업 계획안에 따라 각 단과대학은 2017년부터 대규모 정원이동을 앞두고 있다. 프라임사업이라면 사회수요가 많은 단과대학을 신설하거나 증원하고, 사회수요가 적은 단과대학의 정원을 줄이는 구조조정 사업이다. 우리학교는 미래융합공학대학, 바이오융합대학을 신설해 공학계열 정원을 늘리고, 인문·사회계열, 예체능계열 등을 개편해 정원을 감축하는 내용의 계획안을 공개했다. 제출한 사업 계획안이 통과될 경우 4월 중순 교육부의 평가를 거쳐 4월 말 최종 결과가 발표된다. 1위로 선정된다면 연간 최대 300억 원, 2위부터 9위까지는 연간 150억 원을 3년간 국가로부터 지원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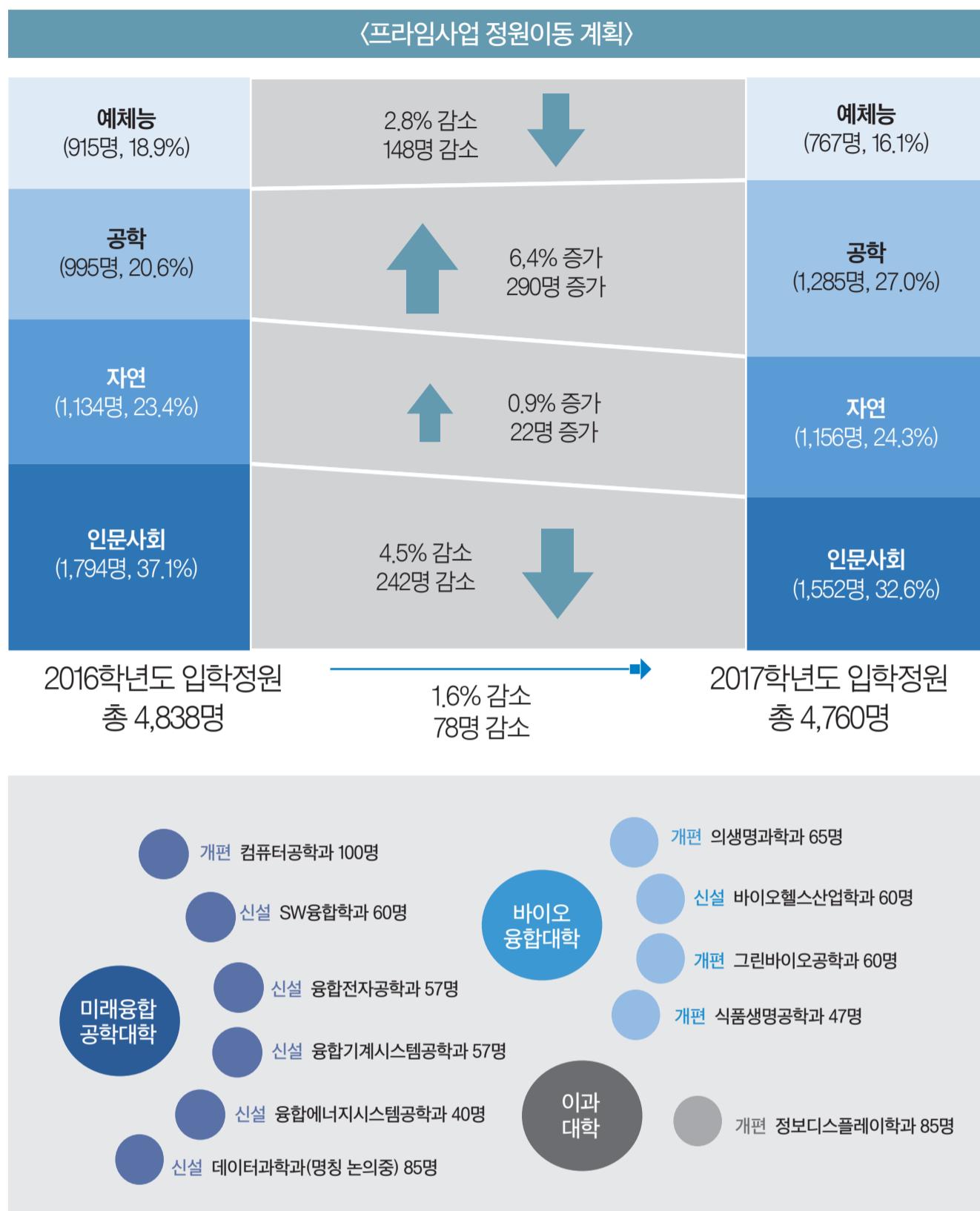
내년부터 계열별 정원 이동

공학계열 정원 290명↑

계열별 인원 변화만 따져보면, 공학계열 정원은 2016년 995명에서 2017년 1,285명으로 기준보다 287명, 비율로는 6.4% 증가한다. 자연계열 정원은 같은 기간 1,134명에서 1,156명으로 22명 늘어나며, 의예과와 치의예과 정원이 포함돼있다. 반면, 예체능 단과대 정원은 915명에서 767명으로 148명, 인문사회 계열은 1,794명에서 1,552명으로 242명 감소한다. 총 정원은 4,838명에서 4,760명으로 서울캠퍼스(서울캠)와 국제캠퍼스(국제캠)에서 각각 39명씩 감소한다. 학문분야 간 정원이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정원의 변동은 크지 않다.

이번 사업 계획에 따라 신설되는 미래융합공학대학과 바이오융합대학의 입학정원을 살펴보면, 공학계열인 미래융합공학대학에는 5개의 학과가 신설되고 전자정보대학 소속이었던 컴퓨터공학과가 이동한다. 기존 컴퓨터공학과는 72명에서 100명으로 증원되며, 신설학과 입학정원은 소프트웨어융합학과 60명, 융합전자공학과 57명, 융합에너지시스템공학과 40명, 융합기계시스템공학과 57명이고, 데이터과학과(명칭 논의중) 85명이다.

자연계열인 국제캠 바이오융합대학은 신설 및 개편을 통해 정원을 조정한다. 국제캠 생명과학대학이 바이오융합대학으로



는 기존과 같이 이학사로 유지된다.

6개 학과 신설, 5개 학과 개편

총 입학정원은 감소

공학계열 인원이 늘어나는 만큼 인원조정을 위해 타 학과에서는 입학정원이 감소된다. 2016년 대비 2017년 입학정원을 보면, 서울캠은 프라임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보건의료계열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학과에서 정원이 줄어든다. 약학과, 한약학과, 한의예과, 간호학과는 정원을 유지하고, 의예과 치의예과가 각각 33명, 24명 증가한다. 이과대학의 정보디스플레이학과가 프라임사업 명목으로 27명 늘어난 것 이외에 지리학과가 2명, 정치외교학과가 2명, 사학과가 1명 증원될 뿐, 나머지 모든 학과에서 적게는 1명에서 많게는 39명까지 감소한다. 경영학과, 자율전공학과가 38명, 39명으로 가장 많이 줄어들고, Hospitality경영학부, 경제학과, 영어학부, 기악과, 무역학과, 관광학부, 행정학과, 언론정보학과가 11~17명 단위로 인원이 조정된다. 앞서 언급되지 않은 모든 학과는 1명에서 8명까지 입학정원이 감소한다.

특히 자율전공학과는 2016년 104명의 정원이 2017년 65명으로 줄어들어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경영학과 역시 38명이 줄어들어 233명에서 195명으로 감소한다. 경영학과의 감소분이 16%인 것에 비해 자율전공학과는 무려 37.5%에 이른다.

공학계열 제외 대부분 학과 정원 감소
자율전공학과 가장 많은 39명 감소

국제캠 또한 서울캠과 마찬가지로 신설 학과 이외에 대부분의 학과에서 정원이 조정된다. 2016년 2,421명에서 2017년 2,382명으로 39명 줄어들고, 신설 단과대에 배정될 미래융합공학대학 242명, 바이오융합대학 172명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학과에서 15% 선을 맞춰 정원이 감축된다. 단, 일부 바이오공학과 단과대학의 경우 15%를 초과하는 정원 감축이 예정된 바 있다.

미래정책원 측은 정원이 조정되는 학과를 위한 대책으로 소수 정원 학과의 전공과목 폐강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인원 감축에 대해 자율예산 배정 비율을 현재와 같이 유지하는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2016학년도 후기 일반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일정 안내

| 구분 | 내용 | 일정 |
|-------------------|----------------|---|
| 내국인 대상 신(편)입학 | 원서 접수 및 서류 제출 | 2016.04.11(월) 10:00 ~ 2016.04.20(수) 17:00 까지 (방문 제출은 공휴일 및 주말 제외) ※ 2016.04.13(수)은 공휴일임 |
| | 전형(면접, 실기평가 등) | 2016.05.21(토) 10:00 |
| | 합격자 발표 | 2016.06.17(금) 13:00 예정 |
| 외국인 및 재외국민 대상 신입학 | 합격자 등록 | 2016.07.01(금) ~ 2016.07.07(목) 16:00 까지 |
| | 원서 접수 및 서류 제출 | 2016.03.28(월) ~ 2016.04.29(금) 17:00 까지 (방문 제출은 공휴일 및 주말 제외) ※ 2016.04.13(수)은 공휴일임 |
| | 합격자 발표 | 2016.06.10(금) 13:00 예정 |
| | 합격자 등록 | 2016.07.01(금) ~ 2016.07.07(목) 16:00 까지 |

- 세부일정은 조정될 수 있으며, 변경이 있을 시 일반대학원 홈페이지(<http://gskh.knu.ac.kr>)에 공지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일반대학원 홈페이지(<http://gskh.knu.ac.kr>) 공지사항 또는 '입학' 메뉴의 모집요강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1면에서 이어짐

신 원장은 “프라임사업에 선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발전 계획을 포기할 수는 없다”며 “프라임사업은 우리학교 발전 계획과 별개가 아니라 그것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프라임사업을 통한 재정지원이 아닌 교비로 발전계획을 진행하게 된다면 목적지는 같지만 시간이 그보다 많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본부 측은 우리학교의 프라임사업에 중 다른 대학과 차별화할 수 있는 부분을 ‘3트랙 전략’으로 설명했다. 이는 커리큘럼에 있어 세 가지 구성요소를 충족시키는 학과를 신설하겠다는 전략으로, ▲Humanity&Foundation 트랙, ▲Core 트랙, ▲Add On 트랙이 그것이다. Humanity&Foundation 트랙에서는 미학, 우주학, 인공지능학과 같은 기초학문을 다룬다. Core 트랙에서는 좀 더 심화된 전공학문을 다루며, Add On 트랙에서는 기초학문과 전공학문 외에 관심 있는 분야의 과목을 골라 수강할 수 있도록 해 자기주도적 성격을 강화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한 부총장은 “얼마 전의 알파고, 이세돌 사례만 봐도 알 수 있듯 기술력보다도 창의력 사고가 요구되는 시대”라고 운을 떠며 “학문적 기초인 인문학적 소양과 창의적 미래학에 대한 교육이 필수적이고 이것을 우리 학교에서 시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학본부 측과 양 캠퍼스 총학생회 간의 협의 과정은?

지난 4개월간, 학생대표와 대학본부는 프라임사업에 대해 수차례의 소통위원회와 준비위원회, 비공식 만남을 거쳐왔다. 프라임 논의 초기부터 서울캠 총학은 사업 참여 반대, 국제캠퍼스(국제캠) 총학은 이원화 문제 해결을 전제로 찬성의 의사를 밝혔다는 점에서 예초 다른 입장장을 취했다. 사업 제안서 제출이 완료된 지금까지 서울캠퍼스(서울캠) 총학생회(총학)와 국제캠퍼스(국제캠) 총학의 태도는 사뭇 달랐다.

서울캠 총학은 사업 논의 초기부터 SNS와 물리적인 시위를 통해 적극적으로 반대의사를 표해왔다. 논란은 사업 제안서 제출 시한이 임박한 시점에서 구성원들의 합의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한 단과대학에서 학교 측의 강압적 서명 요구가 있었다’는 것이다.

한 부총장은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제출 기한을 앞두고 일부 단과대학 학장님이 조급한 마음에 서둘렀던 것 같다”며 “이에 대해 서울

댓글 여론을 모두 읽어보고 있다는 신 원장은 “우리학교에는 공식적으로 중복학과가 없지만 유사학과가 존재하는 것”이라며 “그간 캠퍼스 간에서 (논란되는 학과들이) 커리큘럼의 변화 없이 학과가 인가돼 온 것은 사실이며, 이는 10~20년 전에 학과 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못해 발생한 현상이다”고 말했다.

서울캠 총학생회는 지난 1일 총학 홈페이지를 통해 우리학교 프라임사업 계획에 대한 찬반투표 시행 계획을 공고한 바 있다. 대학 측은 난색을 표했다. 미래정책원 신상협(국제대학원) 원장은 “서울 총학이 인식하는 프라임사업은 실제와 차이가 있다”며 “시간의 촉박함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참여하지 않음으로 인한 불이익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한 부총장은 “평가가 완료된 이후에도 학내 구성원들과 지속적으로 변화 사항에 대해 논의해갈 것”이라며 “교수의회, 노동조합, 국제캠 총학, 대학본부 모두 합의를 이뤘는데 (서울캠 총학의 입장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밝혔다.

국제캠 총학 측은 기본적으로 캠퍼스 이원화 문제를 개선하는 방향에 집중해 대화를 이

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 제안서 제출 이전 마지막 접촉이 된 제4차 소통위원회에서도 국제캠 김병경(체육학 2009) 총학생회장은 “국제캠 학생들은 캠퍼스 이원화 문제를 온전히 해결한다는 조건 하에 프라임사업을 찬성한다”며 “이공계열 학과 증원은 잘못된 일”이라고 목소리를 낸 바 있다. 이후에도 서울캠에 위치한 이공계열 학과의 차후 국제캠 이전에 대한 서면 약속과 이원화 기준 문제 해결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이후 국제캠 총학은 대학본부 측과의 추가 협의를 거쳐 기존의 안을 수용했다. 신 원장은 문제가 된 ‘데이터과학과’와 ‘바이오헬스산업학과’에 대해 전자는 사회계열 학과와의 연계가 효과적이며, 후자의 경우에는 악학과의 학계열 학과와의 연계가 필요해 서울캠에 위치하게 된 경위를 설명함으로써 합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또한 명칭의 경우에는 커리큘럼 비교를 통해 중복학과 논란을 해소했으며, 데이터과학과를 예로 들어 이는 경영대학과 이과대학의 성격에서 신설된 학과이지만 이원화 문제를 고려해 국제캠 소속 ‘미래융합공

학대학’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제캠 총학은 결과적으로 제안서에 합의 서명을 했지만 이원화 문제와 관련해 ▲프라임사업을 통해 약속받은 이원화 문제 해결 ▲명확한 이원화 체제를 위해 학문별 통합과 캠퍼스 특성화 ▲국제캠 다수의 노후 건물들에 대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및 학생자치 환경개선을 위한 개·보수와 관련해 총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신 원장은 온라인에서 집중적으로 불거진 우리학교의 유사학과 문제와 본·분교 논란 여론에 대해 이야기했다. 댓글 여론을 모두 읽어보고 있다는 신 원장은 “우리학교에는 공식적으로 중복학과가 없지만 유사학과가 존재하는 것”이라며 “그간 캠퍼스 간에서 (논란되는 학과들이) 큰 커리큘럼의 변화 없이 학과가 인가돼 온 것은 사실이며, 이는 10~20년 전에 학과 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못해 발생한 현상이다”고 말했다. 이어 신 원장은 “우리학교의 아픈 상처를 프라임사업으로써 해결해 하나의 학교로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계획서에 포함된 ‘서울캠의 이공계열학과 설치’에 대한 학생들의 경계심에 대해 신 원장은 “신설되는 이공계열 학과의 소속을 국제캠 단과대학으로 편성했다”며 “한 단과대학 내에서 중복학과가 존재할 수는 없다는 것을 전제로 이후에도 학과의 성격적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에서 회자된 이원화 사안 관련 입장과 프라임사업 이후의 계획은?

신 원장은 이원화 기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런던 대학의 경우 여러 개의 캠퍼스가 시내에 분포돼 있어 원하는 전공의 수업을 듣기 위해서는 이동할 수밖에 없다”며 “우리학교의 경우 국제캠은 공학계열의 인프라를 토대로 발전하고 서울은 인문·사회계열로 발전하되, 이공계열 신설학과의 경우에는 해당 전공의 교수들이 서울에서 강의하는 것과 같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이 진정한 이원화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 원장은 캠퍼스 특성화와 불명확한 이원화 기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분법적 구분을 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또한 학교 측이 위기 때마다 제시해왔던 ‘중장기적 해결방안’ 밤언에 대한 비판 여론에 대해 신 원장은 “유사학과 정리에 관한 문제는 대학본부 측에서 통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므로 환경 조성 등을 통한 간접적인 유도책을 생각한다”며 “프라임사업에 선정됐을 때 생길 지금을 통해 국제캠 이공계열에 대한 투자가 이뤄질 것인데, 이는 교수들의 연구비 증액과 시설 개선으로 이어져 이공계열 학과 간 이동에 있어 장기적으로 학과 간의 자발적 합의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를 드러냈다. 이에 더해 작년 말 논란이 됐던 외국어대학의 서울캠 이전에 대해 신 원장은 교지학보율과 학과 간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도 덧붙였다.

한편, 신설될 학과의 공간문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캠퍼스 내 신설학과 수용공간에 대해 신 원장은 “서울캠은 Space 21사업의 일환으로 이과대학과 한의과대학 건물을 짓고 있어 공간 부분에는 문제가 없을 것인데, 문제는 국제캠”이라며 “국제캠에 새로운 건물들이 12월 착공 예정이고 2년 가량 소요될 예정이라 그 기간 동안은 새로운 학과의 구성원들이 기존의 멀티미디어관과 생명과학대학 건물을 이용해야 할 것으로 보여 이 부분은 학생들에게 양해를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KYUNG HEE UNIVERSITY

Global Collaborative 2016 Summer Program

“국내외 석학 및 국제기구 전문가의 강의를 듣고 세계 여러나라 학생들과의 교류의 장을 경험하세요!!”

- 프로그램 기간
- 개설강의
- 참여대상
- 신청기간
- 장학금
- 문의

2016.07.04~2016.07.29, [4주간]
“Humanity, Civilization and Global Governance”에 특화된 20개 강의(GC홈페이지 참조)
국내외 대학(원)생
2016.03.14~2015.04.30(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경희대학생의 경우 미래문명원 네오르네상스장학 신청 가능(추후 궁지예정)
미래문명원 Tel: 02 - 961 - 0995 Email: summer@khu.ac.kr 홈페이지: http://gafc.khu.ac.kr/gep 페이스북: www.facebook.com/khugc



4월 셋째 주(04.11~04.15) 취업진로

● 캠퍼스 리크루팅(기업체 채용설명회 및 면접)

| 행사 명 | 모집부문 | 일정 |
|------------------|--|---------|
| 동부회제 채용면접 | 개인영업, 보관관리, 법무영업, 사업업, U/W, 상품업무, 자산운용, 경영지원 | 4.12(화) |
| 상기포르 현지 회사 취업설명회 | | 4.15(금) |

* 위 일정은 기업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참가방법: 경희대학교 재학생, 졸업생 및 졸업생 누구나 사전신청 없이 참석 가능
- 기타 사항은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취업행사 카レンдар를 참조
- 채용설명회 관련 출석증조전 발급: 각 채용설명회 종료 후 현장설명회장

● 취업특강

| 특강제목 | 일시 |
|---------------------------------|---------------------|
| 조직 이해와 일사자원서 작성요령 (01정호 교수) | 4.12(화) 12:00~14:00 |
| 마케팅 실무 - 상품기획 및 브랜드 전략 (최재관 교수) | 4.12(화) 15:00~17:00 |

● 취업진로지도 및 맞춤 컨설팅 (취업상담)

- 대상 : 경희대학교 학부 재학생, 졸업생
- 상담 내용 : 자기소개서 및 이력서 작성법 지도, 면접스킬 지도, 기업 및 직무 조사
- 상세 내용

| 상담유형 | 컨설팅트 | 일시 | 장소 |
|-------|------------------------------|--------------------------|-------------------------------|
| 개인 상담 | 분야별 컨설팅 4명 | 월 ~ 금 (각 컨설팅트별 일정 상이) | 온라인 3548~ 제3법대학 107-2호관 2층 |
| 집단 상담 | ‘취업준비, 졸업보내요’ 총상기 컨설팅트 | 4.15(금) 16:00~18:00 | 청운관 1층 취업진로지원처 |

- 상담 신청자 의무사항 : 취업준비도 검사 참여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 참조)
- 주의사항
 - 상담 당일 날 취소 불가 (상담 당일 전날까지만 가능. 취소시 전화연락)
 -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에 대한 피드백이 필요한 경우 당일 2부씩 프린트

자세한 사항은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 http://jobj.khu.ac.kr
연락처 02-961-0167~8, job@khu.ac.kr
위치 청운관 1층 취업진로지원처

학문간 연계 강화 '전략', 프라임사업이 일부 담당

연계협력 클러스터와 프라임사업

김도엽 기자 wogmd567@knu.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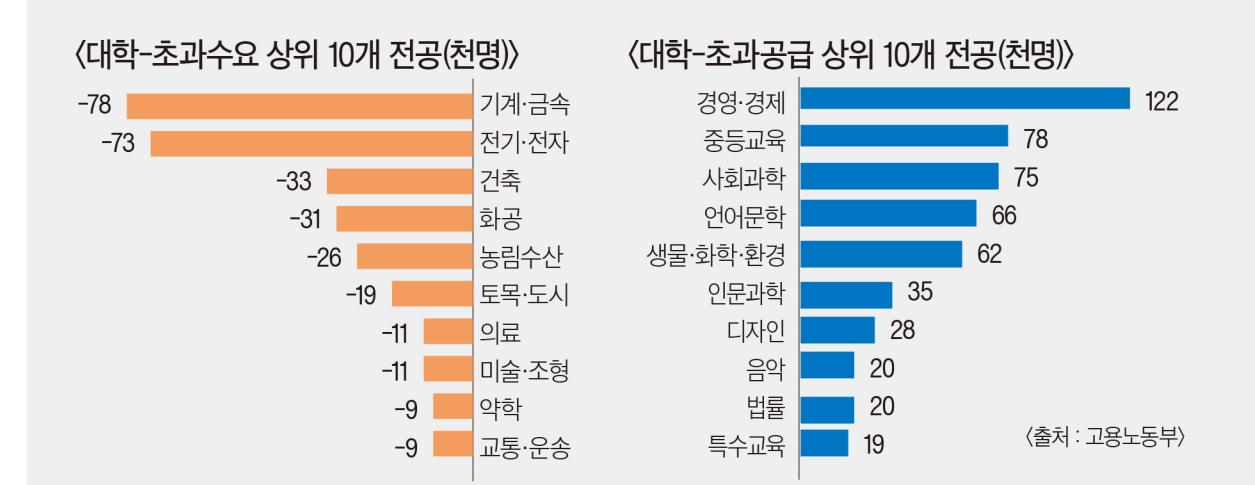
지난 2012년 '미래전략 Global Eminence 2020 - 경희의 미래, 인류의 미래'에서 학문 간 연계를 강화하는 정책사업으로 '연계협력 클러스터'가 제안됐다. 연계협력 클러스터는 '대학의 본질과 가치, 목적과 역할에 대한 새로운 성찰 요구', 'IT 기술발전에 의한 시공간 경계 소멸', '고도의 복잡성과 어려움을 가진 새로운 연구 과제 제시' 등 고등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방안이다.

이미 세계 명문대학들은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이고 혁신적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하버드대학교의 Global Health Institute가 대표적인 예이며, 이외에도 유수 대학들이 글로벌 헬스, 나노바이오, 빅데이터 등의 새로운 융복합 교육·연구 분야의 창출을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 발맞춰 우리학교는 경희 연계협력클러스터를 추진해 바이오헬스 클러스터·미래과학 클러스터·인류문명 클러스터·문화예술 클러스터·사회체육 클러스터 등의 5개 클러스터를 구성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 클러스터 사무국의 설명이다.

5개 클러스터의 주요 내용은 '융복합 교육 프로그램 + 융복합/심화 연구그룹 + 융복합 아젠다 실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은 심화과정 교육 프로그램 운영, 교내·외 융복합 연구기관들과 네트워크 구축 활성화, 융복합 교육 프로그램과 연구 주제와 연계한 실천 프로그램 운영을 목표로 가지고 있다. 성장 잠재력이 큰 융복합 분야를 육성하고 전략적인 교수 충원과 석학 영입 등으로 세계적 수준의 융복합 학술기관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다.

5개 클러스터 중 바이오헬스 클러스터와 미래과학 클러스터는 이번 프라임사업과 연계해 윤곽을 잡아가고 있다. '바이오헬스 클러스터'는 이번 프라임사업에도 포함된 바이오융합대학 설립으로 국제캠퍼스 생명과학대학 학사구조 개편을 통해 의생명과학과·그린바이오공학과·식품생명공학과로 학사구조 개편을 준비 중이며, 서울캠퍼스에는 바이오헬스산업과를 신설할 예정이다. 이 중 바이오헬스산업과 교육과정(안)에는 건강노화, 임상영양 분야 교과목의 추가와



의료기기 분야의 공학관련 교과목의 축소를 담고 있다. 더불어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의료기기 중개 임상시험 지원센터 신청 준비와 흉룡 바이오의료 R&D 앵커에 입주할 센터 및 스타트업 벤처 발굴(2016년 7월에 선정 예정)을 준비 중에 있다.

'미래과학 클러스터'는 대학에 대한 사회적 수요 변화와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현재 교육시스템의 한계 극복의 필요성, 과학기술의 현재가치와 함께 미래가치도 지향하는 교육·연구의 필요성으로 대두됐다.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4-2024 대학 전공별 인력수급'에 따르면 흔히 경영, 사회과학으로 대표되는 '문과' 학과의 경우 많게는 약 12만 명에서 1만 9천명까지 초과되지만 기계·금속, 전기로 대표되는 '이과' 학과의 경우 많게는 7만 8천명에서 9천명까지 부족할 것으로 예측했다. 미래과학 클러스터는 대학에 대한 이 같은 사회적 수요 변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교육·연구 시스템을 설계

구현하여 세계적 선도대학으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미래과학 클러스터 실행계획 컨설팅 예산 확보 추진과 이 분야 관련 석학급 인사 면담 추진, 산학협력중점교수 초빙들을 계획하고 있다.

'인류문명 클러스터'는 '교육, 문학·문화예술·사회과학 등을 포함한 미래학·생명과학 등 인간의 지식 영역 전반에 걸친 융합적 접근을 중심으로 새로운 지식생태계 창출'을 목표로 한다. 이미 지난 해 12월부터 인류문명 클러스터 회의가 개최됐으며 올해 1월에는 총장 주재로 존 아이켄베리 교수(프린스턴대학교 석좌교수)가 참여해 인류문명 클러스터 논의도 이루어졌다. 추진사항으로 미래가치를 논의하고 이에 대한 학문적 기여와 실천의 접근 방식을 정리해나가는 기초적인 작업을 위한 기획위원과 연구 모임을 구성할 예정이다.

'문화예술 클러스터'는 교육·문화·광관·의료가 융합하는 새로운 문화예술

중심지 육성을 목표로 한다. 문화예술과 기술의 융합, 지역사회 문화예술 활성화를 핵심가치로 하며 지난 3월 2일, 4월 5일 1, 2차 회의를 진행했으며 클러스터 방향 설정, 준비위원회 구성과 위원 추천 및 논의가 이루어졌다. 추진 방향으로 문화예술 클러스터 교내 교수 및 외부초빙인사로 구성된 준비위원회 발족과 회의를 추가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사회체육 클러스터'는 미래 인간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제시됐다. 스포츠를 통한 개인가치 창출, 가족과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의미 발견 등이 핵심가치이다. 연계협력 클러스터 사무국 관계자에 따르면 "사회체육 클러스터는 계획은 있지만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정하진 못했다"라며 "앞선 4개의 클러스터가 구체적인 윤곽을 잡은 후 단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대략적인 추진(안)에 따르면 학교 스포츠 클럽 리그 운영과 스포츠 캐어 프로그램 센터 운영 등을 고려하고 있다.

| 프로그램 안내 | |
|---------------------------------------|---|
| 일시 | 장소 |
| 13:00~17:00 | 청운관 1층 상담실 |
| 15:00~17:00 | |
| 장소 청운관 B117호 청운관 B117호 | |
| 직무 분석법, 로스쿨 진학 등 | |
| 신청방법 | |
| 356호 상담로지원처 권원 상담실 | 종합정보시스템 - 수업/성적/학점, 메뉴에 서 신청(컨설팅등록 일 정, 컨설팅 내용 확인 후 신청) |
| 학단에 위치) 상담 전, 후 각 1회 | |
| 해서 지참(필수) 인해 주세요 | |
| www.facebook.com/khujob 1층 학생생활지원관 | |

2016-1학기 사회진출지원프로그램

4월 29일(금)

17:00~18:30
학생회관 2층 다목적실

"공모전" 아는 만큼 성공한다.

- 커리어개발을 위해 공모전이 필요한 이유
- 나에게 공모전이란
- 성공하기 위한 공모전 준비방법

- career.knu.ac.kr로 신청 -

취업진로지원처

나도 이제 첫 출근 합니다!

2016년도 상반기 콩채대비
모의 면접 및 면접 특강

◆ 접수일자 : 2015. 4. 11 ~ 선착순 마감
◆ 일시 : 4. 27(수) / 5. 4(수) / 5. 11(수) 종 택
◆ 문의 :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 공지사항
career.knu.ac.kr

-취업진로지원처-

보도

고가의 교재비 부담, 불법 복제 주요 원인 되기도

교재비에 부담 느끼는 대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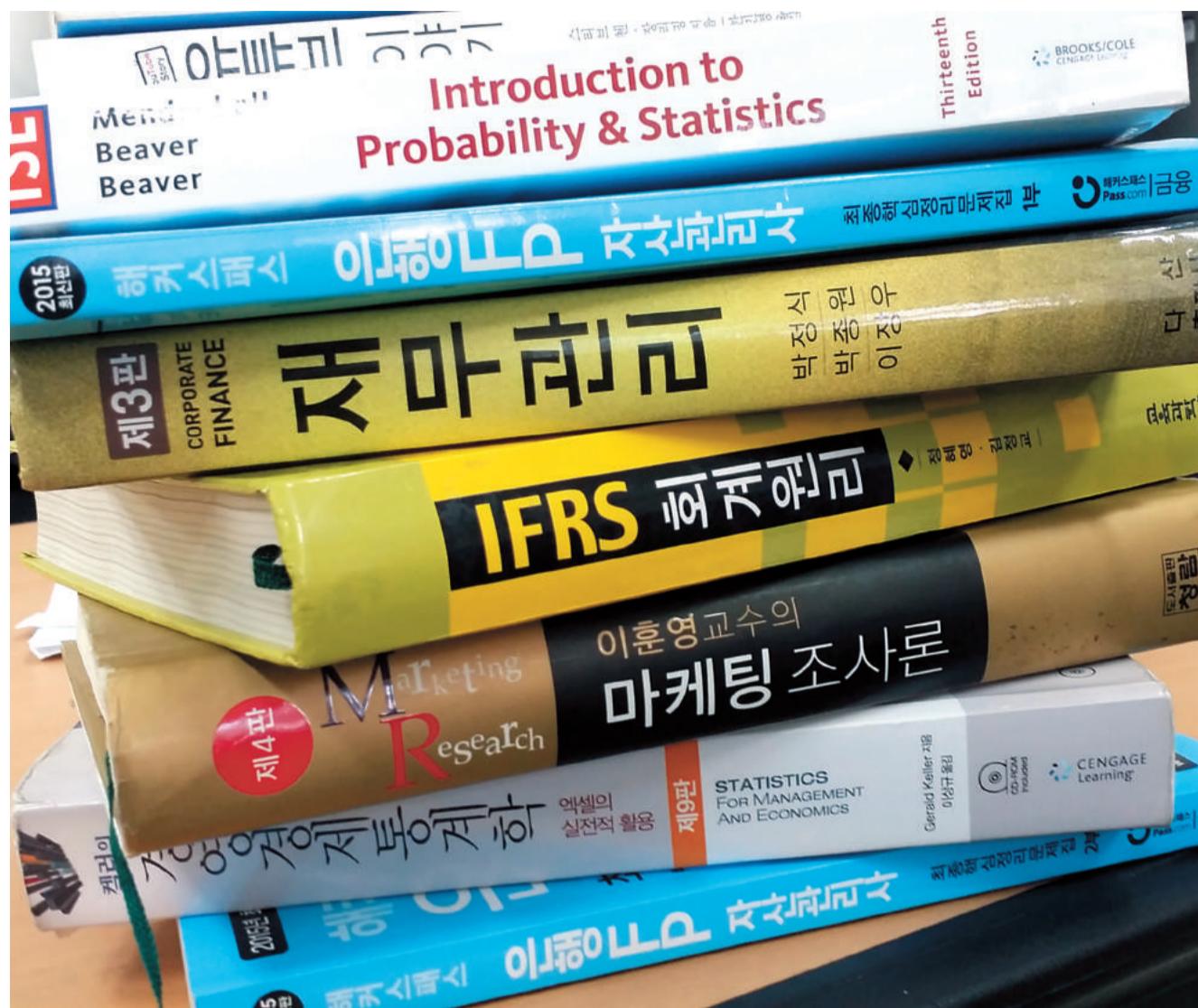
황경선 기자 sunny96@knu.ac.kr

이다정(철학 2014)양은 새 학기를 마냥 설레는 마음으로 맞이할 수 없다. 수업교재비가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한 학기에 15만 원 가량을 교재비로 지출해야하기 때문에 학기가 시작되는 3월과 9월에는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하다. 이 양은 ‘주말 알바로 한 달 생활비를 충당하는 나로서는 교재비 지출이 부담스럽다’며 한숨을 쉬었다.

이 양의 사례처럼, 학생들이 학기 초에 드는 교재구입비가 만만치 않아 고심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 신문이 지난 29일부터 31 일까지 우리학교 학생 13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교재구입비를 금전적으로 어떻게 느끼시나요?’라는 질문에 응답자 중 50%(69명)이 ‘부담스럽다’에, 40%(55명)가 ‘매우 부담스럽다’에 답해 총 90%가 교재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재 구입해도 활용도 떨어져

‘아깝다’ 느끼는 학생 많아



학생들은 왜 교재비에 부담을 느끼는 것 일까. 한 학기에 학생들이 대체로 6개의 과목을 수강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강 후 첫 달에 6권 내외의 책을 구입해야 하는 셈인데, 전공서적이나 원서의 가격은 3만 원을 훌쩍 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도서관에서 교재를 대여하기에는 ‘한정된 수량과 대여기간’이라는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구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이번 학기 수업교재 구입을 위해 총 얼마를 지출했습니까?’라는 질문에 ‘10만원 이상~15만원 이하’에 답한 응답자가 44%(59명)로 가장 많았다. 한 달 생활비를 묻는 질문에 49%(67명)가 ‘30만원 이상~40만원 미만’에 답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교재비가 학생들에게 얼마나 큰 부담인지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금전적 부담을 감수하고 교재를 구입해도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아 학생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교재 활용도가 낮은 수업은 교재를 사는 것이 아깝다는 것이다. 한 응답자는 교재비와 관련한 의견을 묻는 주관형 질문에서 ‘교수가 교재를 필수적으로 지침이라고 해서 구입했지만 실제 수업은 PPT 위주로 진행되는 경

우, 한 학기 동안 교재의 반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등의 상황이 자주 일어나니까 교재를 구입하는 것이 아깝게 느껴진다’고 답했다. 다른 응답자는 ‘교수가 자신의 저서를 교재로 선정해 구입하도록 했으나 실제 수업에서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던 적이 있었다. 사실상 강매와 다를 바가 없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이렇다 보니, 다른 문제가 파생되고 있다. 바로 무단 제본이다. 교재비를 아끼기 위해 학생들이 도서관에서 빌린 책을 제본하거나, 여려 명이 책 한 권을 구매해 무단으로 제본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무단 제본은 저작권법상 불법행위지만, 매번 개강 철이면 학교 근처 복사전문점은 제본을 하려는 사람들로 호황을 누리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지난 3월 동안 우리학교 서울캠퍼스 인근 복사전문점에서 적발된 불법제본 건수는 61 건에 달한다. 실제로 ‘수업 교재를 구입하지 않고 제본했던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중 75%(104명)가 ‘있다’고 답

했다. 제본 교재를 이용한 이유에 대해서는 ‘책값이 비싸서’에 답한 응답자가 65%(72명)로 가장 많았다.

대학가에서는 중고서적 거래가 이런 문제들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 학생회는 이번 학기에 중고 전공서적을 시중가격 대비 40~70%에 판매하는 ‘플리마켓’을 열었다. 고려대학교 종합학생회는 ‘별자취’ 사이트를 통해 중고 교재의 판매, 구매를 중개하고 있다. 판매자는 사이트와 연결된 구글독스에 판매하려는 교재를 등록하고, 구매자는 온라인 교재 리스트 중 구매하려는 교재를 선택해 운영사무국에 연락하는 방식이다. 고려대학교 종학생회 측은 “학우 여러분의 생활 복지 개선을 위해, 특히 교재비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시작하게 됐다”며 “지난 3월 한 달간 약 100권 이상의 교재가 거래되어 뿐만 아니라 판매액도 예상보다 높았습니다.”라고 말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중고서적 거래도 활발하다. 연세대학교 커뮤니티인 ‘세연넷’과 고려대학교 커뮤니티인 ‘고파스’에

는 새 학기면 전공, 교양교재 거래 글이 쏟아진다. 실제로 ‘고파스’에서 중고 교재를 구입해본 적이 있다는 정유선(고려대)양은 “개강 철에는 교재 거래 글이 엄청 많이 올라온다”며 “책이 많이 올라오니까 원하는 책을 쉽게 구할 수 있어 자주 이용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학교는 중고서적 거래가 어려운 환경에 있다. 타 대학의 사례처럼 학생회 차원에서 진행하는 활성화된 중고서적 거래 관련 사업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한 활발하게 이용되는 온라인 커뮤니티도 없어서 지인에게 책을 물려받지 않는 한 중고교재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 게다가 중핵교과, 글쓰기, 시민교육교재의 경우는 매년 개정판이 나오기 때문에 중고교재를 사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캠퍼스 종학생회 측은 “우리도 교재장을 개최했던 적이 있지만 교재가 많이 모이지 않아 지금은 하지 않고 있다”며 “현재는 중핵교과 교재의 반값쿠폰을 배부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고 설명

했다.

물론 교재구입비가 그렇게 아까워해야 할 부분이나는 시선도 있다.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교재는 어쨌든 필요하다는 것이다. 교재를 필수로 지침하게 하는 한 교수는 이에 대해 “총 없이 전장에 갈 수 없는 법이다. 학생도 마찬가지다. 책 없이는 학문의 깊은 곳에 도달할 수 없다”며 “조금 부담스럽더라도 다른 데 쓸 돈을 아끼고 미리 돈을 저축해두면 충분히 교재비를 충당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응답자는 ‘술 마실 돈은 있고, 책 살 돈은 없다는 것인가?’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교재사용의 목적이 ‘구입’이 아닌 ‘保姆’에 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학생들이 금전 부담에서 벗어나 교재를 접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에 공감한 대학의 교수들이 모여 진행하고 있는 ‘빅북(Big Book)’운동은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제본은 저작권법상 불법 빅북운동 대안으로 떠올라

지난 2013년에 시작된 이 운동은 저자가 지적 저작권을 공유해 무료로 교재를 보급하는 운동이다. 주로 ‘경제학원론’, ‘통계학개론’ 등의 기초교재 위주로 이뤄지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PDF파일을 내려 받는 방식이다. 원하는 경우 제본하여 사용해도 저자가 지적 저작권을 공유한 것이기 때문에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이 운동을 주도한 빅북운동본부의 대표 조영복 교수(부산대학교 경영학과)는 홈페이지 인사말에서 “대학의 지식창조 활동의 결과물들은 이를 배워야 할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공유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저작재산권의 문제를 비롯한 많은 결집들을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며 빅북운동의 취지를 설명했다.

지식은 공유될수록 혁신적 창조의 힘을 얻는다. 대학에서 지식 공유의 첫 걸음은 학생들이 책을 ‘부담스럽지 않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일 테다. 도서관이 이미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교재로 사용되는 책을 모든 학생이 볼 수 있도록 구비할 수는 없는 게 현실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문제의식에 공감하여 ‘빅북운동’과 같은 대안을 모색한다면 지식 창조가 더욱 활발히 일어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2016학년도 후기 석사과정 신·편입생 모집

● 모집학과 및 전공

| 구 분 | 학 과 | 전 공 |
|------|---|---|
| 석사과정 | 글로벌기업법학과 공공법학과 중국법학과 지적재산학과 조세법학과 | 글로벌기업법전공, 미국법전공, 자산관리법전공 입법전공, 공법전공, 경찰·인전법전공 중국법전공 지적재산법전공, 인터넷법전공 조세법전공 |

● 장학제도

| 구 分 | 장학금 | 자금기준 |
|--------|--------------|-----------------------------|
| 공무원장학 | 수입료 25%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재직 공무원 |
| 공공기관장학 | 수입료 25%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재직자 |
| 외국인장학 | 수입료 30% | 정원 외로 입학한 외국인 |
| 평생교육장학 | 수입료 20% | 사이버대학교(방송통신대학교 포함) 졸업(예정)자 |
| 조교장학 |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 조교에 관한 규정에 의거 임용된 자 |

* 국가고시장학, 성적장학, 모범장학, 충장장학 등 기타 장학제도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 강의 – 주중(야간) 및 주말 개설

* 토요일 집중 강의 개설,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교차수강 가능

● 특별전형 일정

- 원서접수 : 2016. 4. 18(월) ~ 5. 6(금) 17:00
- 전형 일 : 2016. 5. 7(토) 10:30
- 접수방법 : 우편접수, 방문접수, E-mail접수(khsb2670@knu.ac.kr)

● 전형료 : 전형료 면제

● 제출서류

-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 본 대학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대학교(학부) 졸업(예정)증명서 1부

● 문의처

- 전화 : 02 - 961 - 0905 • 홈페이지 : interlaw.knu.ac.kr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

2016학년도 2학기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신입생 모집

석 · 박사 과정

1. 모집 분야 : 국제통상학영화과 / 국제개발협력학과 / 국제경영학과

2. 모집 인원 : 석사과정 90명
박사과정 00명 (국제개발협력학과에 한함)

3. 지원자격

석사과정 : 국내 · 외 대학교 학사학위 취득자 및 취득 예정자

박사과정 : 국내 · 외 대학교 석사학위 취득자 및 취득 예정자

4. 전형방법

국내거주자 : 저원자 : 서류(40%), 영어인터뷰(40%), 경이학문분석(20%)

해외거주자 : 저원자 : 서류(40%), 영어인터뷰(60%)

* 해외거주자 저원자와 인터뷰는 전화로 진행하여, 일자는 별도 통지

5. 전형 일정

서류접수 : 2016. 04월 18일(월) ~ 05월 11일(수) 17:00 (우편 소인기준)

국내 거주자 : 인터뷰 및 영어준비면접 : 2016년 05월 21일(토) 시간 추후공지

해외 거주자 : 인터뷰 : 2016년 05월 18일(수) ~ 05월 20일(금) 기간 중 개별면접 (예정)

합격서면접 : 2016년 05월 30일 월요일(예정)

6. 제출서류

- 입학원서 (국제대학원 홈페이지 접수) 양식 다운로드, 저기소개서 양식 포함)

-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 (국교, 평점 및 학점증 등)

- 후원서 2부 각 1부씩 (국문가능, 자주암식)

- 출입국기록증(국적증명서), 박사과정 지원자에 한함)

- 영문 이력서 (자유형식, 박사과정 지원자에 한함)

7. 원서접수

- E-mail 접수 : gsp@knu.ac.kr

- 우편접수 : 117104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역삼대로 1732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행정실 [봉투내 '입학원서 저증' 개재 표]

8. 다양한 강학 혜택

□ 입학 및 재학 시 성적에 따라 수업료 100~50% 면제

□ 학사조교, 원汁자 수업료 전액 면제 가능

□ 가족 과정자 대상 수업료 10~25% 지원

□ 교수사 일자기 전원에게 기숙사비 50% 지원

□ 교내 연구프로젝트 참여 시 수당 지급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Graduate School of Pan-Pacific International Studies, Kyung Hee University

Tel : 031-201-2146~9, Fax: 031-204-8120

2016년도 대학직장 예비군 향방기본훈련 안내

● 훈련대상 : 전역 1~6년차 예비군 전원

● 장 소 : 경기예비군현장

● 훈련 명 : 훈련일자 1인 원

계 2,943

5. 9(월) 748

5. 10(화) 744

5. 11(수) 737

5. 12(목) 714

6. 28(화) 신청자

위 5. 9(월) ~ 12(목) 대상 중 신청자 4,743명 신청 중

※ 훈련 안내는 휴대폰 문자, E-mail, 대학주보, 교내방송, 학교 / 단과대학 홈페이지 등으로 공지

● 이동방법

가) 단체이동

공부·운동 병행, 명문대 사려 음미해야

전문가칼럼 - 발전과 만족



남성우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발전적 성취'와 '만족의 여유'란 정확히 무엇일까. 우선 주관적 용어로 '발전과 만족'의 개념을 설명하자면, '발전적 성취'란 개인의 사회적 영역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경희인과 사회인으로서 심오한 학문탐구 등 전공에 대한 몰입과 노력을 통해 사회적 명예와 지위, 학문성과 수준 등을 꾸준히 높여 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만족의 여유'란 각자의 개인영역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전자와 비교할 때 좀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대학인과 사회인은 물론 은퇴 후 삶이 다할 때까지 해당하는 영역이라고 하겠다. 좀 더 쉽게 말하자면, 멀리 보면서 발전과 병행함으로써 삶을 '더 건강하고, 즐겁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만족의 여유는 개인의 취향이 반영된 영역, 수많은 갈래 포함

필자는 지난 2005년부터 후마니타스 칼리지에서 교양스포츠 강의를 담당하고 있으며 스포츠정책, 그 중에서도 레저스포츠정책을 전공으로 두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이 글은 '만족의 여유'를 제공해주는 영역 중 '스포츠'와 함께하는 대학 및 미래생활을 권유하는 글이 될 것이다.

물론 이 같은 권유는 발전적 노력을 해왔고 또 하고 있는 경희인을 대상으로 하는 권유가 될 것이다. 스포츠 활동은 절대적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해온 발전적 노력에 만족의 여유를 더해주기 적합한 활동이기 때문이다.

지난 세기부터 오늘날에 이르도록 주변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사자성이 중 하나가 고진감래(苦盡甘來)다. 그런데 이 사자성어는 본래 내포한 의미보다는 주로 '오늘의 노력으로 내일을 보장 받는다'는 의미로 활용되면서 '경쟁에서의 우위 점유'라는 관점에서 강조되어왔다. 오죽하면



'일한만큼 즐기는 당신이 더 아름답다'는 주제의 공익광고가 만들어지겠는가.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일 중심 사회'에 대한 비판적 노력도 비교적 진지하게 이뤄지고 있다. 일부 선진적인 기업에서는 18시가 되면 업무용 컴퓨터 전원이 자동 차단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고, '시간별 탄력근무제'를 통해 좀 더 나은 삶을 고민하기도 한다.

하지만 스포츠 정책 전문가의 관점에서 봤을 때, 스포츠 활동 진작을 통한 적극적인 생활 개선의 노력은 아직도 요원하고 아쉬운 형편이다. 자, 상단의 사진을 보자. 1982년에 개봉했던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유명한 영화 〈E.T.〉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외계인의 체형이다. 영화의 제작진은 E.T.의 체형을 고민한 결과 당시 코앞으로 닥쳐왔던 미래 컴퓨터 환경에 오래 노출된 인간의 체형을 모델로 E.T.의 체형을 모델링했다. 커진 뇌와 눈, 짧아진 다리, 길어진 목과 손가락, 커진 배와 작아진 발 등으로 이뤄진 외계인의 모습은 용불용설(用不用說)에 입각해 탄생한 미래 인류의 예상도인 셈이다. 오래전 대학주보에서도 이와 유사한 기사를 확인할 수 있다.

신체 변형이라는 극단적인 우려 등을 진행해오는 동안, 매 학기마다

는 차치하더라도, 우리는 '건강'이 아쉬운 수많은 순간들을 근래에 많이 겪어왔다. 창의적 융합 패러다임을 선도한 인재인 스티브 잡스 전 애플 CEO도 '건강'이 아쉬웠던 대표적인 인사이고, 고등학교 시절 부친의 운동 권유를 실천하지 못해 오늘

날 전 세계를 돌며 체력의 한계를 통감한다는 반기문 UN사무총장도 이와 유사한 사례일 것이다. 더불어, 지난 1955년 시운마루호 참사 이후 유치원생부터 철저한 수영교육을 시키는 일본의 방침이 우리에게도 적용되었다면 혹시 세월호의 비극을 최대한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일말의 한탄 역시 짚게 드리운다.

스포츠는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만들어준다

스포츠는 일상의 시간을 잡아먹는 활동이 아니다. 오히려 스포츠는 생활을 더욱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들어준다. 세계적인 대학은 거의 대부분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만이 스포츠는 물론, 일상에서의 움직임마저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고 있는 추세이다.

후마니타스 칼리지에서 골프강좌 등을 진행해오는 동안, 매 학기마다

빼지지 않고 들어오는 질문이 있다. '골프, 수영, 레저 스포츠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을 묻는 질문이 그것이다. 이에 대한 대답은 항상 같다. "지금 당장, 오늘부터 걷기 등 일상에서 움직임을 늘려나가는 생활을 실천하는 것"이다.

서울캠퍼스 학생은 회기역에서 학교까지 걸어 다니고, 청운관은 계단을 이용해 오르내리며,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평화의 전당을 산책해보자. 마찬가지로 국제캠퍼스 학생은 영통역에서 학교까지 걸어 다니고, 버스를 이용한다면 외국어대학 앞에서 내려 강의실까지 걸어보며, 멀티미디어관은 계단을 이용해 오르내릴 수 있다.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노천극장으로 산책해보면 좋을 것이다.

이런 일상 안의 운동을 통해 기초체력이 길러질 것이다. 그렇게 길러진 기초체력으로 다양한 스포츠 활동에 나서본다면, 종국에는 어느 기업에서도 요구하는 경희인, 학문적 성취도가 높은 경희인, 나아가 인류발전을 선도하는 경희인에 손색이 없을 것이다. 오늘의 작은 걸음 한 발자국이 누적되면, 자기 자신에게 좀 더 가치 있고 아름다운 미래를 안겨주는 시작이 될 것이다.

제'이다. 이 문제는 불평등과 관련이 있다. 또한 인간은 더 이상 존엄한 존재가 아니라 여러 부속이 합쳐진 존재로 전락하게 될 것인데, 이것이 '부폐의 문제'이다. 의회 공청회 방청권을 사고 팔면 부유한 로비스트가 방청권을 독점하게 되고 의회의 품위는 손상하게 된다. 시장에 의해 가치가 평가되고 교환되는 순간 가치가 감소하거나 변질되는 것이다.

미국에서 야구장 스탠드를 복층으로 만들고 상층을 호화로운 MVP 층으로 만들자, 개척자 정신으로 하나가 되었던 미국의 지역 공동체가 빈부차에 따라 양분되는 현상을 보였다고 한다. 공동체주의자 샌델은 미국적 가치가 사라지는 이러한 현상을 막고 싶어 한다. 이를 위해 그는 다음과 같이 호소한다. "시장의 문제는 사실상 우리가 어떻게 함께 살아가고 싶은가에 관한 문제다. 모든 것을 사고 팔 수 있는 사회에서 살고 싶은가?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고 돈으로 살 수 없는 도덕적 시민적 재화는 존재하는가?" 요컨대, 바야흐로 도덕적 결단이 필요한 때라는 것이다.

▶1면에서 이어짐

경제학자들은 인센티브가 일반화되는 것에 주목한다. 사람은 인센티브에 반응하며, 인센티브는 현대 삶의 초석이고, 경제학은 인센티브를 연구하는 학문이라는 것이다. 인센티브는 사람들로 하여금 더욱 분발하게 만드는 방법이다. 경제학자는 적절한 인센티브를 통해 세상에 고칠 수 없는 문제는 없다고 믿는다. 유인이 필요한 인간의 모든 행동에 인센티브를 적용함으로써 시장질서가 비시장 규범의 영역에까지 확대되게 되었다.

시장사회에의 명분은 타인의 권리를 침범하지 않는 한에서 원하는 재화의 자유로운 거래라는 자유주의의 이념과 시장 거래는 구매자와 판매자에게 똑같은 이익을 제공하며, 집단의 행복과 사회적 효용을 향상시킨다는 공리주의의 이념에 근거한다. 하나님의 예로 목장 주인이 제한된 수의 검은 코뿔소를 사냥할 수 있는 권리 를 사냥꾼에게 팔 수 있도록 허락한다면, 코뿔소를 번식시키고 돌보면서

밀렵으로부터 보호한다는 것이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실제로 이런 식으로 검은 코뿔소의 수가 다시 증가했다고 한다.

그러면 시장사회가 문제가 되는 점은 무엇일까? 샌델은 공정성과 부패가 문제라고 한다. 신장 불법 거래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신장을 파는 사람은 아마도 상황에 몰린 가난한 사람일 것인데, 이것이 '공정성의 문

참여마당

나희연
(국어국문학 2014)



그럼에도 계속해보겠습니다

황정을 작가의 소설 〈계속해보겠습니다〉는 철저하게 미미한 존재들에 관한 이야기다. 자매인 '소라'와 '나나', 그들의 옆집에 살던 소년인 '나기'가 소설의 주인공이다. 이들은 편부모 가정에서 자랐고 독립해서 자신만의 삶을 꾸리고 있다. 소설은 그려내는 이들의 삶은 거창하지도 요란하지도 않다. 그저 조용하고 담담하게 살아가는 삶을 그리고 있다. 그러나 내면에는 미미한 존재로서 이들이 받은 상처와 흉터가 남아있다.

"벽을 끼고 이쪽 모퉁이를 돌면 이웃집... 벽을 끼고 저쪽 모퉁이를 돌면 우리집(26쪽)"인 공간. 쉽사리 상상조차 가지 않아 환상적으로 느껴지기까지 하는 이곳에서 세 사람은 어린 시절을 함께 보냈다. 반지하에 위치한, "벽을 사이에 둔 둘이자 하나의 공간(187쪽)"이라는 배경에 대한 묘사는 주인공의 어려웠을 어린 시절을 어렵잖거나 짐작하게 한다. 소라와 나나는 모성을 경험하지 못한 채 성장했고 나기도 일을 하러 나간 엄마를 기다려야 한데다 가난했다. 그럼에도 그들은 성장했다.

사회의 암묵적 폭력을 받으며 살아가는 주인공

'상상할 수 없다고 세상을 없는 것으로 만들지 말아줘'

주인공들은 암묵적인 차별의 시선을 견디며 자란다. 편부모 가정에 대한, 미혼모에 대한, 동성애에 대한, 폭력에 대한 모든 시선들. '우리'가 쉬이 상상할 수 없고, 겪어보지 못했기에 은연중에 '없다'고 치부해 버리는 것들. 책은 우리가 '결핍되었다'고 단정 짓는 것들에 대해 보내는 우리의 시선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소설 후반부에 작가는 나기의 입을 빌려 말한다. "당신이 상상할 수 없다고 세상에 없는 것으로 만들지는 말아줘.(187쪽)"

어쩌면 이제껏 세상은 줄곧 폭력으로 가득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우리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소외시켰고, 때로는 보이지 않아서 소외당하기도 하면서. 종종 주변에서 들려오는 말들이 바람에 애인 살갗처럼 아플 때가 있다. '아프다'고 소리내어 말하기에는 사소해 보일 수도 있는 아픔. 그렇다고 해서 그 아픔은 결코 작지 않다. 소설은 그런 아픔들에 대해 다룬다. 이것은 세상에서 '평범'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폭력에 대한 메시지이자 소외에 대한 시선이다. 사회가 '평범'이라는 이름으로 용인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란 어렵다. 그래서 암묵적으로 용인되는 폭력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없으니 끊이지 않는다.

우리는 모두 아프지 않을 권리가 있다. 그래서 동등하지 못한 시선에 의문을 품고 소외에 대해 응시해야 한다. 이 소설이 던지는 의문은 거창하지 않다. 소라, 나나, 나기의 존재만큼이나 고요하게 목소리를 낸다. 하지만 동시에 분명히 존재한다. 소설은 의문을 거두지 않는다. 상처를 안고 자신만의 삶을 살아나가는 모든 이들을 묵묵히 응원한다.

결국 우리는 모두 저마다 서로 다른 부족으로 떨어져 살아간다. 인간은 하찮지만, 그래서 인간은 그 하찮음으로 어떻게든 살아간다. 하찮기에 사랑스러운 인간은 세계의 폭력에 무기력하지만, 또 그럼에도 생을 이어간다.



경제학자들은 인센티브가 일반화되는 것에 주목한다. 사람은 인센티브에 반응하며, 인센티브는 현대 삶의 초석이고, 경제학은 인센티브를 연구하는 학문이라는 것이다. 인센티브는 사람들로 하여금 더욱 분발하게 만드는 방법이다. 경제학자는 적절한 인센티브를 통해 세상에 고칠 수 없는 문제는 없다고 믿는다. 유인이 필요한 인간의 모든 행동에 인센티브를 적용함으로써 시장질서가 비시장 규범의 영역에까지 확대되게 되었다.

그러면 시장사회가 문제가 되는 점은 무엇일까? 샌델은 공정성과 부패가 문제라고 한다. 신장 불법 거래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신장을 파는 사람은 아마도 상황에 몰린 가난한 사람일 것인데, 이것이 '공정성의 문

Saving Lives,
적십자는
생명입니다

대한적십자사
경기일백원

생명나눔! 사랑의 헌혈!

당신의 헌혈이 누군가에겐 꺼져가는 생명을 살립니다.
Saving Lives, 적십자는 생명입니다.



안정적인 혈액공급을 위해

지금 가까운 대한적십자사 헌혈의집을 방문해 주세요.

스포츠

주력선수 줄부상에 ‘울상’ 짓는 농구부

위기의 농구부 집중조명

강경진 기자 cocoandlisa@khu.ac.kr

지난해 우리학교는 모두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2015 전국 남녀대학농구리그’에서 12승 4패의 준수한 성적으로 전체 3위를 차지해 4강 플레이오프전에 진출했다. 센터의 부재에도 우리학교 특유의 속공 플레이와 압박 수비로 ‘센터 없는 농구’의 좋은 예를 보여준 것이다. 그러나 올해 우리학교는 4학년 선수들의 줄부상으로 또 한 번의 위기에 봉착했다. 주력 선수들의 부재 상황에 처한 우리학교 농구부를 조명해봤다.

지난 5일 우리학교 농구부가 ‘2016 전국 남녀대학농구리그’(남녀대학농구리그)에서 벌어진 한양대와의 경기에서 67-65로 승리하며 동국대, 중앙대와 함께 공동 3위에 올랐다. 우리학교는 지난 3월 24일 조선대를 70-59로 제압하고 3월 30일 연세대에 79-95로 패해 2승 1패의 전적을 기록하고 있다.

이번 시즌 우리학교 농구부는 주력 선수들이 부상을 당하며 위기 국면을 맞았다. 센터 김철욱(스포츠지도학 2012) 선수는 지난해 무릎 부상으로 시즌 아웃 판정을 받았던 바 있다. 이번 시즌 들어 김철욱 선수는 복귀했지만, 4학년이자 주 전력인 가드 맹상훈(스포츠지도학 2013), 포워드 최승우(스포츠지도학 2013), 포워드 이성순(스포츠지도학 2013) 선수가 줄줄이 부상을 당해 향후 출전이 불투명해졌다. 김철욱 선수의 복귀는 우리학교의 호기로 작용할 것이지만, 주전 선수들의 부상으로 생긴 공백을 넘는 선수들이 메울 수 있을 지가 이번 시즌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연세대전에서는 우리학교의 선수 부족이라는 문제점이 단적으로 드러났다. 신체조건이 우수한 포워드 전력이 부족해 더블 포스트 플레이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또한 조직력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적 연세대를 만나며 핀볼 2:2 공격에 취약점을 보이기도 했다. 이날 경기를 참관한 맹상훈 선수는 “팀에 경기를 운용할 만한 사람이 없어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수선한 것 같다”며 “경험 부족이 큰 패인”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우리학교는 연세대전의 부담을 극복하고 한양대를 상대로 승리하며 분위기를 회복했다. 이번 경기에서는 경기 전반 이민영(스포츠지도학 2014), 윤영빈(스포츠지도학 2014) 선수가 번갈아가며 한 박자 빠른 공격으로 선전했다. 신입생 권혁준



지난달 30일 우리학교 농구부가 2016 전국 남녀대학농구리그에서 연세대에 79-95로 패했다.

(스포츠지도학 2016) 선수와 최재화(스포츠지도학 2016) 선수와 최재화(스포츠지도학 2016) 선수도 악착같은 수비로 한 양대를 막아섰다.

포스트맨 박찬호(스포츠지도학 2016) 선수는 골밑에서 제 역할을 해내며 신입생의 저력을 보여줬다. 한양대는 특유의 ‘육상 농구’로 꾸준히 득점하며 우리학교를 몰아붙였지만, 끝내 김철욱 선수의 자유투가 승기를 가져왔다.

하지만 주력 선수들의 부상으로 인한 전력 누수는 생각보다 컸다. 농구부를 이끌고 있는 김현국 감독은 “중심을 잡아줘야 할 고학년 선수들이 자리를 비워 힘든 상황”이라며 좁은 포워드 기용 폭, 조직력 부족 등을 현재 우리 팀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

우리학교는 현재 포워드 최승우, 이성순 선수 이외에도 이건희(스포츠지도학 2014) 선수 역시 동시에 부상을 당하며 센터 박찬호 선수가 포워드로 출전하고 있는 실정이다. 포스트 플레이에 문제가 생긴 것은 이 때문이다. 김 감독은 이에 대해 “더블 포스트 플레이의 경우 리바운드에서 강점을 가

지지만 백 코트의 수비가 상대적으로 약해져 미스매치가 자주 발생하는 반면, 싱글 포스트 플레이에는 가드 기용 폭이 상대적으로 넓고 속도 면에서도 우수하지만 신장이 낮아져 리바운드 싸움에서 밀리게 되는 단점이 있다”고 말했다.

또 김 감독은 “이번 시즌 신입생들의 활약은 고무적이지만 아직 우리학교 농구스타일을 익히지 못해 조직력에서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며, 이 때문에 “2, 3학년 선수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김 감독은 향후 팀의 전망에 대해 “이번에 골밑 전력이 충원돼 팀이 성장할 여지가 크다”고 평가하면서, 이에 덧붙여 “선수들이 우리학교가 기존에 해왔던 속공 플레이, 빠른 공수 전환, 압박 수비에 더욱 매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부상에서 회복 중에 있는 주장 맹상훈 선수는 “저학년 선수들이 시즌 전반기 동안 기량을 쌓아 후반기에는 4학년 선수들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냈으면 한다”고 주문하며 “특히 신입생 선수들의 역량이 특출나 기대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우승하는데 도움 되고파”

2016 우리학교 농구 이끌 ‘루키 3인방’ Q&A

Q. 본인의 포지션과 장단점을 알려 달라.

A. 고등학교 때에는 슈팅 가드였다. 대학에 와서 이민영, 정지우 선수와 교대로 포인트 가드의 역할도 맡고 있다. 슈팅 가드로 활동했던 경험 덕분에 중장거리 슈팅에 강하고 빌늘림이 빠른 편이다. 그러나 포인트 가드 포지션을 처음 맡아서 볼 배급과 경기 조율에 다소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권혁준 선수(가드·178cm)

Q. 앞으로의 포부 한 마디 부탁한다.

A. 지난해 손목 수술을 두 번이나 하고 힘들었던 5개월을 보내며 코트 위로 복귀하는 이 순간만을 기다렸다. 다치지 않고 매 경기 최선을 다해 남은 경기를 다 이길 수 있도록 하겠다. 우리학교가 플레이오프에 진출해 우승까지 향하는 데에 도움이 되고 싶다.

Q. 본인의 포지션과 장단점을 알려 달라.

A. 고교 시절부터 포인트 가드였지만, 다니던 고등학교에는 선수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공수를 병행했었다. 물론 지금은 주로 포인트 가드 역할만 맡고 있다. 감독님께서 팀의 공격력을 끌어올리는 운영능력은 청찬해주셨지만 실수가 많은 점을 지적하셨다. 수비가 약해 강한 압박 수비를 배우려고 노력 중이다.

Q. 대학에 와서 힘든 점은 없는지 궁금하다.

A. 예전에 비해 운동량이 늘어 적응하는데 고생을 했다. 순발력, 스피드를 높이기 위한 피지컬 트레이닝이 힘든 편이다. 그러나 체계적인 운동 프로그램이 기본기를 다지는 데 도움이 되는 건 확실한 것 같다.



최재화 선수(가드·180cm)

Q. 이번 시즌 목표가 있다면 말해 달라.

A. 지난 3월 ‘제32회 MBC배 수원시 전국대학농구 대회’ 예선전에서 중앙대에 패했는데, 돌아오는 11일 중앙대전에서는 꼭 이길 것이다. 중앙대전을 포함한 모든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 꼭 고학년 선수들과 함께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고 싶다. 최종적으로 남녀농구리그 전반기 3위권 안에 드는 것이 목표다.

Q. 현재 센터가 아닌 포워드로 출전 중이라고 들었다.

A. 원래 센터로 활동했지만 지금은 김철우 선수의 복귀와 포워드 선수들의 부상으로 파워 포워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파워 포워드로서 돌파와 외곽 수비까지 병행하기 때문에 전에 비해 운동량이 많아진 점은 힘들다. 그러나 프로로 진출할 때는 포워드로 나갈 생각이기 때문에 포워드로 활동하는 것에 대한 불만은 없다.



박찬호 선수(센터·201cm)

Q. 지금까지 경기하며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말해 달라.

A. 최근 10kg 정도 체중 감량을 하며 몸싸움에 약해진 것이 아쉽다. 또 급한 성격으로 여러 번 수비에 실패했다. 우리학교는 수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악착같이 수비하는 플레이를 배우고 싶다. 리바운드에서 두각을 드러내지 못한 것도 마음에 걸린다. 리바운드 싸움에서 이기는 선수가 되고 싶다.



개교 67주년 기념

2016 경희 ‘웃는 사자상’ 공모
2016 KH Laughing Lion Award

경희의 미래, 인류의 미래를 열어나가는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대학(원)생을 찾습니다.
‘학문과 평화’의 경희정신을 대내외에 드높인 경희인을 추천해주세요.
‘웃는 사자’와 함께 활렬과 평화가 넘치는 대학공동체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구성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접수일시: 2016년 4월 11일(월) ~ 5월 2일(월)
- 대상: 경희대학교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휴학생 제외)
- 부문: 학술연구/사회공헌/문화예술·체육
- 시상인원: 0명
- 시상내용: 상장 및 소정의 장학금
(단, 본교 장학규정에 의거 장학금 지급 대상 요건에 부합하는 자에 한함)
- 추천방법: 첨부한 공격서 작성 후 추천(본인 및 타인 추천)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 (pr@khu.ac.kr)
- 양식: 경희웃는사자상 추천서 - 우편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선정절차: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
- 수여식: 추후공지
- 문의: 대외협력처 홍보실 02-961-0023~4

경희대학교 대외협력처

